

# “힘든 시기, 취약계층 어려움 돕는다”

## 한국거래소,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개월째 지속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 감염증 자체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 이웃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한 생필품 등 구호 물품 제공과 재난지역에 대한 시설복구에 쓰였다.

7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부산 남구 지역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초복 맛이 삼계탕 배달 봉사활동을 했다. 이 후원은 코로나19로 경로 식당 등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 서울, 부산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20명에게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배달,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또 1사1촌 농촌결연마을인 경기 연천군 나룻배마을을 방문해 호박 따기 등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아울러 마



에서 생산한 쌀(20kg) 105포를 구매해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후원했다. 경기 연천군 나룻배마을은 2008년 11월 한국거래소와 1사1촌 농촌결연을 한 이후 매년 거래소 임직원이 농촌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다. 거래소는 마을회관 혈압계 기증, CCTV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 지원과 마을 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도농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와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 1천450명에게 마스크 3만장과 개인 손 세정제 등 개인위생 물품을 후원했다. 지원 대상은 KRX 지역아동센터 35개소의 센터 이용 아동 1천50명과 거래소 임직원이 매월 결연해 후원하는 한 부모 가정 아동 100명, 부산 지역 그룹홈 아동 300여명 등 총 1천45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이다.

3월에는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1억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지원했다. 후원금은 거래소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시청이 협력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물품, 생필품 및 소독 방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이어 4월 들어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전국 한부모 가정 아동 100명에게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한 PC 100대를 긴급 후원했다. 국내 초중고교생이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대체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 준비가 안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PC를 지원했다. 후원 대상은 거래소 임직원이 지난 28년간 자율적으로 기금을 모아 매월 생활비를 후원해 온 한부모 가정이다.

6월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개인위생 및 방역에 사용되는 살균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살균수제조기 2대를 서울·부산 지역 사회복지관에 후원했다. 취약계층이 개별적으로 살균수나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사는 것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에서 살균수제조기 후원을 거래소에 요청해 추진했다. 매년 복지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약 5천명에게 살균수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지원 이사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계의 크고 작은 노력이 모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거래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1, 2 한국거래소 전경  
3 1사1촌 농촌 일손돕기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들 4 임직원들이 부산 감만종합 사회복지관에 삼계탕을 배달했다.